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11주일 2016.6.12.(다해) 제2002호



죽전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루카 7,47)

하느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주십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용서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회개와 하느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와 용서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2사무 12,7ㄱ-10,13

제2독서 갈라 2,16.19-21

복음 루카 7,36-8,3.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화답송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흥종 대건 안드레아 신부 | 가천본당 주임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 지을 때마다 벌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작은 번개 같은 것으로 때리신다면 하루 중에 여러 번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인간이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야말로 감사함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단죄하는데 예수님만은 단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던 바리사이는 예수님까지 속으로 비난합니다. 죄인인 줄 안다면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사이에게 더 많은 빛을 탕감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들어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여인은 더없이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확정해주시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죄가 오히려 은총의 근원이 된 셈입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우리도 죄를 용서받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고해성사 받기를 꺼리지만 앓는다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빛을 탕감 받는 것처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고 큰 사랑을 드러낸 오늘 복음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이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나큰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용서를 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발을 직접 눈물로 닦아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도 항상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로 3:12**

찬미받으소서

복음,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경탄

신종호 분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텃밭 농사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 한창 많이 바쁠 때지요? 땅을 갈다가 지렁이를 만나곤 하는지요? 그렇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지렁이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땅 속에서 열심히 일해 흙 속에 있는 안 좋은 건 먹어주고 좋은 것은 내어 주니까요. 흙을 비옥하게 해 주는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의식을 하든 못하든 모든 피조물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의존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스팔트와 벽돌 바닥을 밟으며 어딘가를 가고, 유리와 금속, 시멘트로 만든 환경 속에서 생활합니다. 자연과의 만남이 이제는 일상적인 것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지요. 지하철을 타면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바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두려움, 기쁨, 복잡한 개인적 체험을 직접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회칙 47항) 사람도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모든 피조물이 귀하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이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교리서 357항)이라는 사실 역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듯이 인격인 사람 또한 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그 깊은 경탄을 일컬어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회칙 [인간의 구원자] 10항) 합니다. 달리는 그리스도교라고도 합니다.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깊은 경탄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경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웃과 자연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회칙 66항 참조) 하지만 이런 긴밀한 연결은 잊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뽑아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정교한 균형을 존중해야 합니다.

피조물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자연의 생태계를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지렁이 한 마리도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주인이 돌아올 수 있겠지요. 그 친구들도 자기 자리를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일 역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공경이 아닐까요?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경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대화의 주제로 한번 삼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텃밭엔 사랑이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 | 비산본당 주임

“아저씨 상추가 참 예쁘게 자랐네요.” “예. 감사합니다.” 요즈음 성당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저와 지나가던 주민이 건넸던 인사입니다. 도시 한 복판에 있는 성당에서 무슨 텃밭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성당 땅이 넓어서 텃밭을 만들거나 화단 한쪽 모퉁이에 채소밭을 가꾼 것도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비산성당은 도심 한 가운데 있는데, 북쪽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고 서쪽에는 빌라, 다른 곳은 도로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마치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섬과 같습니다. 이런 환경을 아시는 분들은 왜 텃밭이냐며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텃밭은 성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당 동쪽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텃밭 남쪽으로 나지막한 주택과 빌라가 있지만 다행히 빌라가 고층이 아니어서 식물들이 자라는데 큰 지장이 없는 환경입니다. 텃밭을 가꾸기 전 이곳에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밤이면 자동차들이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끝자락에 구청에서 도시 미관을 가꾸기 위해 쓰레기를 치우고 텃밭을 만들었고, 우리 본당에서 이 텃밭을 가꾸기로 한 것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배추를 키우기 위해 작년 가을 내내 교우들과 함께 벌레를 잡고 또 물을 주어 배추를 키웠습니다. 열심히 키운 배추로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 김장을 담갔고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100분에게 김치 한 통씩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근 김치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맛이 있던지...

올 봄엔 작년 가을에 준비해 두었던 한약찌꺼기 퇴비를 밭에 뿌리고, 농기구를 가진 주민들이 와서 밭을 갈고 채소를 심을 수 있도록 고랑을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쁜 고랑에 교우들과 함께 청상추, 적상추, 오크상추, 들깨, 토마토, 방울토마토, 치커리 등의 씨를 뿌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들깨만한 떡잎들이 보이더니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채소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동네 주민들은 꽃밭보다 예쁘다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텃밭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뿌리지 않은 씨앗들이 새순을 열심히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 속에서 가꾸는 텃밭이라 농약을 칠 수 없으니 매일 텃밭에서 불청객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텃밭에 가 보면 천사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말없이 잡초를 제거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교우들과 주민들의 도움이 있기에 도심 한복판에 예쁜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텃밭에서 자라는 것은 채소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마음, 채소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침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날이 뽐뽐하게 자란 상추를 솥에 내기에 제격입니다. 솥에 낸 상추에 삼겹살을 곁들여 텃밭을 함께 가꾼 분들과 함께 나눔의 잔치를 벌여볼까 합니다. **필독**



교황님 이야기

교황 문장

주교가 되면 자신만의 고유한 마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문장(紋章)이라고 하는데 보통 소속 교구나 사목 방침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단의 모자, 방패, 십자가, 맨 밑에는 사목 표어, 그리고 양옆에 장식술이 들어가는데 주교는 3단, 대주교는 4단, 추기경은 5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좀 다릅니다. 모자의 모양이 바뀌고 베드로의 열쇠가 교차하는 문양을 가지게 됩니다.

교황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장인 교황 문장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은 인노첸시오 4세(1243~1254) 교황님이십니다. 교황 문장의 형태는 바티칸 시국의 국기인 교황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교황관을 가운데 두고 금 열쇠와 은 열쇠가 교차된 모습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열쇠는 하늘(금색)과 땅(은색)에서 죄와의 유대를 묶고 푸는 교황의 권한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8~19)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에서 유래된 것으로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지닌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패에는 교황이 속한 가문이나 교구의 문장 또는 교황 개인의 개성과 앞으로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펼칠 계획들과 관련된 요소들을 나타내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추기경 시절의 문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약간 변형하기도 합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교황을 상징하는 삼중관을 없애고 주교관과 팔리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대신 삼중관의 의미를 연상시키고자 주교관 그림에 교황의 세 가지 권한 즉, 성품권, 통치권, 교도권을 상징하는 세 줄의 금색 띠를 그려 넣고 이 세 띠가 중앙에서 만나 하나로 일치되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황의 문장에는 방패 아래에 사목 표어를 새긴 리본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직이 항주삼덕(믿음, 희망, 사랑)에서 기인하는 모든 이상에 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예외적으로 주교 시절 당시의 사목 표어 ‘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ando atque eligendo)’를 교황 문장에 그대로 첨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문장**



프란치스코 교황 문장

교구 행사

■ 2016년 대신학원 홈커밍데이 미사



은경축을 맞은 사제들이 모교인 대신학원을 방문하는 홈커밍데이 미사가 6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대신학원 대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40주년 감사미사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40주년 감사미사가 6월 5일(일) 오후 2시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에서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2016년 사제 성화의 날



2016년 사제 성화의 날 미사가 6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에서 교구 사제단과 4,000여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제1회 교구장기 대구가톨릭야구대회



제1회 교구장기 대구가톨릭야구대회가 6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휴베이스볼 파크랜드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 월간 <빛>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례

기간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장소 :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

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 053-250-3011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10:30 범어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15일(수) 19:30 신평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18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6월 18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11:00 월성성당	프란치스칸을 위한 후원회 미사	6월 18일(토) 15:00 프란치스칸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13일(월) 19:00 4대리구청 회의실	-	-

성소 | 피정

젊은이 침묵 피정

기간: 7.2(토) 16:00~3(일) 17:00
장소: 작은자매관상선교회 본원(진주)
주제: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문의: (010)5805-7665 / (055)752-7665

성바오로팔수도회 성소자 대피정

기간: 7.8(금) 17:00~10(일) 15:00
장소: 성바오로팔수도회 여주 사도
의모후집 / 피정비: 3만원
신청: 김스페란자 수녀, (010)2503-5185

교육 | 모집 | 기타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7.1(금) 17:30~3(일)
4박 5일: 7.15(금) 14:00~19(화)
8박 9일: 7.4(월) 14:00~12(화)
에니어그램: 7.1(금) 15:00~3(일)
문의: (031)946-2337~8

대구가톨릭대병원 검진센터 이전 오픈

새롭게 단장한 종합검진센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실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치: 암센터·장기이식센터 5층
문의: 650-4114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7.16(토), 성모님 발현지
경비: 425만원(11박 12일)
일자: 8.16(화), 성모님 발현지
경비: 415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자: 7.17(일)
장소: 남한산성순교성지
신청: 6.15(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27차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
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청소년 및 가족(1차 7.19 2차
7.23) 대학생(6.25) / 문의: 593-1273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피지 선교체험

기간: 7.26(화)~8.5(금) 10박 11일
대상: 고1~대학생, 청년 남녀
경비: 200만원(유류할증료 및 세금포함)
신청: (02)924-3048

제48차 영국·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목)~8.11(목)
대·일반: 6.26(일)~8.7(일)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
초·중·고_기숙사 / 대·일반_홈스테이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 대상: 초4~중3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www.oakinternational.co.kr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등대교
간지바다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 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이 카타리나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다빈치랩 | 에토피 | 알레르기 | 시마귀 | 티논 | 건선 | 무좀
피부마용 | 여드름 | 흉터 | 기미 | 갈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당앞역 3번출구 T. 053) 651-8800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 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 (파비올라)

발아플랜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통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성모발현지(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 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6월 14일(화)은
(故) 박창수(요한) 문시놀
선종 7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6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9(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제3회 초등학교원 신앙대회

일시: 6.25(토) 10:00~16:3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문의: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김도율(요셉) 신부·즐거운 비상전

기간: 6.14(화)~19(일) 10:30~20:00
장소: 대백프라자 갤러리
문의: 불로성당, 981-2035

베네딕도 청년 성가단·성경 테마 음악회

일시: 6.24(금) 20:00, 삼덕성당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회,
(010)5918-3014

교육 | 모집

115차 교구 청년국 선택주말

기간: 7.8(금)~10(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 미혼
문의: 이현정 목사, (010)4248-8823

<http://cafe.daum.net/daeguchoice>

6월 가나 강좌

일시: 6.19(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접수)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6.12(일) 15:00 /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대교구본당사회복지협의회

25주년·숨은 공로자 찾기

대상: 본당 사회복지활동을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게 활동해 오신 분
신청: 각 대리구 사회복지회
마감: 7.31(일) / 문의: 253-9991

대구평화방송 개국 20주년 기념

심원 김영자 수녀 한국화 초대전
전시기간: 6.15(수)~21(화)
장소: CU갤러리(매일빌딩 1층)
초대일시: 6.15(수) 18:00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21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2차 ME주말: 7.8(금) 19:00~10(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성가,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탐방, 여행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10)2662-1560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2급, 오카리나, 수
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성법, 가곡
성가,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2급, 창
작소설, 중급·왕초보관광영어, 제대·사범
꽃꽂이, 장구병창 / 신청: 254-6115

대가대평생교육원 여름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포함)
음악원(4·6·8주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모집: 6.17(금) / 문의: 660-5554~7
<http://conedu.cu.ac.kr>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최귀순, 김명숙(아네스)

성요셉관(원로사제관) 직원 채용

모집: 시설·관리직 0명
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사본,
자격증사본 / 마감: 6.20(월)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30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의류 ·침구류 ·소품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 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암읍 유등리 730번지

통합의료진총원
전인병원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Hospital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기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아네스)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품으로 만드는 우리의 참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장(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경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산부인과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